

요한복음 39번째 말씀

지옥에 대한 경고와 천국에 대한 희망

본문: 요한복음 8:21-30

오늘날 인기 없는 대표적인 설교중의 하나는 지옥에 관한 설교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잔인하고 두려움을 주는 설교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즐거워 하고 믿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죽기 전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를 함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 비장한 각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설교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옥에 대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준다. C.S. Lewis는 진정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본문 요한복음 8:21-30절을 자세히 읽어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성을 알려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1.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신 예수님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말은 잘못된 동기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참된 생명의 떡으로 찾지 않고 그들의 육신의 배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받고자 하기보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찾는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26-27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중에도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죄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갈 수 없다.

잠언 1:28=30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이다. 잘못 된 동기로 주님을 찾는 것은 겉으로 보면 신자인 것 같지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이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22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해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시다(25).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다(28).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할 것이 많으나(2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래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할 것이 많음에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가운데 죽은다는 말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9: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 21:8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 하신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II.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많으나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믿는 자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마다 영생을 얻

는 것(요한복음 6:40)이라고 하셨다. 에스겔 18:3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미가서 7: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도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신 보장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어 죽으시겠다는 것이다(28).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 기적을 바라고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든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기 보다 기적 자체만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로마서 10:17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서 살펴 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믿게 도와주셨다. 마태복음 5-7장의 산상 수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3-17장의 다락방의 강화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 주셨다. 우리는 힘써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일가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이외에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가족, 친척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족과 친척들이 주일에 줌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주일 오후 6:30분에 줌으로 교회를 시작 했는데 88세인 형수님이 이 교회에 참석 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 하신다. 이 교회가 더욱 확장 되어 우리 가족, 친척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Ⅲ.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

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다. 인자를 든 후에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그인줄 알리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나중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때야 이 복음을 알게 되는 데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가 믿지 않아 지옥에 온 것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후회 했으나 때가 늦었다고 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믿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나사로가 가서 깨우쳐도 그들은 믿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아 지옥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때가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다.

고후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